토끼와 거북이

0. 토식이는 여느 날처럼 토순이를 만나기위해 길을 걷고 있었다. 그런데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거북이가 길에 서서 무언가를 찾듯이 목을 빼고 두리번 두리번거리며 서있었다.

1-1. 숨는다.

1-2. 신경 쓰지 않고 거북의 앞을 지나간다.

1-1. 토식이는 숨어있고 시간이 지나 약속시간이 되어 토순이가 저쪽에서 걸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토식이는 나른한 날씨 탓에 잠들어 버리고 말았다. 거북은 찾던 것을 발견한 표정으로 느릿느릿 토순이에게 다가가고 있다.

1-1. END. 잠에서 깬 토식이는 토순이를 찾아보지만 토순이와 거북이는 이미 저멀리 언덕 아래에 있는 바다로 들어가고 있었다. 약속시간을 지키지 않은 토식이는 토순이를 잃고 말았다.

1-2. 거북은 잘됐다는 표정으로 토식이를 쳐다보며 말을 건넨다.

거북 : 안녕~날씨도 더운데 어디 가는 길이야?

토식 : 어어.. 안녕 난 토순이를 만나러 가는 길이야.

거북 : 그래? 토순이가 오면 심판으로 세워두고 나랑 달리기 경주를 하지 않을래? 내가 옛 날에 비해서 많이 빨라졌거든. 나한테 이기면 당근 5개를 줄게.

토식 : 그래 알겠어. 내가 이기면 꼭 주는거다?

토순이가 도착하고 둘은 달리기 경주를 시작한다.(여기서 미니게임 달리기)

달리던 와중 선택지가 뜬다.

2-1. 계속 달려서 결승점에 도착한다.

2-2. 아니다 너무 힘들게 달려서 숲속에서 쉬다가 간다.

2-1. 결승점에 도착한 토식이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기다리는데 뒤에서 갑자기 누군가 팔을 잡아끈다. 고개를 돌리자 거북과 모양새가 비슷한 자라가 자신을 잡아끌고 있다.

자라 : 미안해. 토식아. 용왕님이 많이 편찮으신데 토끼의 간이 특효약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도 토순이에게는 우리가 잘 말하고 당근도 많이 줄게.

토식 : 싫어! 난 죽고싶지 않아! 날 내버려둬!

완강한 저항 끝에 토식이는 탈출에 성공하고 저 멀리서 달려오는 토순이와 함께 바닷가에서 멀찌감치 물러난다.

자라 : 거북아 미안해. 내가 힘이 없어서 토식이를 놓치고 말았어.

거북 : 우린 이제 어떡해. 용왕님이 엄청 노발대발 하실 텐데..

잔뜩 불안해하며 울고 있는 거북과 자라를 보고 토식이는 토순이에게 말을 건넨다.

토식 : 토순아. 거북과 자라가 괘씸하긴 하지만 불쌍하니까 내가 도와줄까?

토순 : 토식이 네 간을 줄려고? 안돼.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마.

토식 : 아니야. 산에 있는 엉덩이 절벽 꼭대기에 엄청난 약초가 자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 용왕님도 그 약초를 드시면 나을 거야. 조금만 기다려 갖고 올게.

토식이는 자라와 거북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하고 엉덩이 절벽으로 가 약초를 캐온다. (여기서 절벽 오르는 미니게임)

토식 : 이 약초만 있으면 용왕님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을 거야. 괘씸하지만 우리 부모님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도움을 주라고 해서 주는 거니까 우리 부모님께 고마워해.

거북&자라 : 고마워. 용왕님이 이 사실을 알면 기뻐하실 텐데 같이 가서 용왕님께 감사인사도 받고 축제도 같이 즐기다 가지 않을래?

토식&토순 : 그러지 뭐.

토식이와 토순이는 각각 거북과 자라의 등을 타고 바닷 속 용궁으로 떠난다.(여기서 미니게임)

용왕 : 그래. 자네가 내 약을 구해줬다고? 자네의 간을 빼먹으려고 한건 정말 미안하네. 안그래도 거북과 자라를 보낸 후에 의사를 추궁했더니 글쎄, 바다에서 구하기 힘든 재료라 그냥 아무렇게나 말했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의사를 크게 벌줬으니 걱정말고 용궁 축제를 즐기고 가게나.

용궁 축제가 끝나고 토식이와 토순이는 다시 육지에 오른다. 토순이를 집에 데려다준 토식이는 집에 가는 길에 누군가를 만나는데...(to be continued..)

2-2. 너무 힘들어서 쉬다가 깜빡 잠에 든 토식이는 주변을 둘러보지만 거북이도, 자라도 보이지 않는다. 언덕 아래 결승점을 보니 토순이가 거북과 자라에게 끌려 바닷가로 들어가려는 모습이 보였다. 토식이는 재빨리 결승점으로 달려간다.(다시 달리기 미니게임) 하지만 늦어버린 토식이는 허탈한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본다.

2-2-1. 포기한다.

2-2-2. 아니다. 내가 사랑하는 토순이를 위해 바다를 향해 뛰어든다.

2-2. End. 포기하고 뒤를 돌아 집으로 돌아가던 토식이는 구덩이에 빠져버린다. 구덩이에 빠진 토식이는 소리높여 구해달라는 말을 해보지만 그 누구도 듣지 못한다.

2-2-2. 토식이는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육지동물인 토식이는 바다에서 숨을 오래 쉬지 못해서 금세 탈진해버리고 만다. 잠시후 정신이 들자 눈 앞에는 수염을 길게 기른 할아버지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다.

산신령 : 자네는 어찌하여 육지동물이 바다에 들어갈려고 했는가?

토식 : 제 여자친구가 용궁녀석들에게 납치를 당해서 구하기위해서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게 없을 것 같네요.

산신령 : 자네가 여자친구를 정말로 아끼는 것 같으니 내가 선물을 주도록 하겠네. 엉덩이 절벽 위에는 효과가 뛰어난 약초가 있으니 그 약을 가지고 다시 여기로 온다면 자네에게 바다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는 축복을 내려주겠네.

그 말을 들은 토식이는 엉덩이절벽~~~~~(아까랑같음)

산신령 : 자네 정말로 여자친구를 사랑하는가 보구만. 축복을 걸었으니 여자친구를 데리러 가게. 그리고 그 약초는 용왕에게 먹이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게야.

토식이는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바다로 뛰어든다.(바다 미니게임)

용궁에 도착한 토식이는 용왕에게 약을 가져 왔으니 토순이는 놓아달라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용왕은 토순이를 풀어주고 토식이와 토순이를 용궁의 귀빈으로 대접한다.

~~~아까랑 같음